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0월 8일 (제91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국가위기의 평화종을 더하다

평화의 청아한 종소리 울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울리누나
새벽 교회당 종소리인양 울리누나

삼천리금수강산에
종달새 봄노래 아지랑이 춤추며
목련꽃 피어나듯 울리누나 울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남북에 울리누나
세계에 울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만민이 박수치며 천사도 박수치누나

날짐승 우아한 군무
오케스트라 창공을 빛내고
평화의 종소리 노래하네

전쟁의 어두움 사라졌다 손뼉 치는 아낙네
딸 아들 품에 안고 단잠을 이루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늘과 바다, 산야가 주인을 부르니
남정네 아낙네 춤추며
주님 은혜 찬송함이
역사적 명작 이뤘네
평화의 비둘기가 날았다네

朋友

봉 우 컬럼

탐심과 욕심

탐심(貪心)이란 탐욕스런 마음이고, 욕심(慾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나는 또 정의하고 싶다. 탐심은 악으로, 그 마음으로 인해 남을 해치는 것이고, 욕심은 죄로 만족함을 모르는 마음 때문에 나를 멸망의 포구로 이끄는 것이라고.

개인이나 사회, 국가와 국제관계에서 분쟁의 뿌리는 언제나 탐심과 욕심이 그 배후에 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무서워지는가?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남의 재산, 남의 아내, 남의 지식, 남의 명예를 노리는 자들로 인해 살벌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 가정이나 직장, 교회와 사회가 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까? 그것은 지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장 루시엘을 보자. 그가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에서 어떻게 사단, 마귀라는 이름으로 전락했는가. 탐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울도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남의 아내를 탐한 다윗이 받은 고통 또한 그 얼마인가.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골3:5)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눅12:15)고 말씀

하셨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전리품을 욕심 부리다가 자손과 함께 돌에 맞아죽었고, 일천 여인을 취한 솔로몬은 또 어떠한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탐심과 욕심, 곧 죄악을 멀리하고,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5:4)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그래서 애통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원을 이뤄주십니다. 자식의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은 죽어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7:17).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으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벽을 향하여 앉아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왕하20:3). 그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사38:14).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즉시 위로 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왕하20:5~6).

애통하는 자는 복(福)이 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다는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1:4). 하나님은 애통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고 위로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게 하사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열가나라는 한 남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쑥쑥 잘도 낳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1:10).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유다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니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 땅을 저주하겠다고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왕하 22:19~20).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남편인 우리아를 접전 지역에서 죽인 일을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6:6).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자' (행 13:22)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쓴 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그 때 새벽을 깨우는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26:75). 하나님은 베드로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셨고,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

어했습니다. 하도 슬피 울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무남독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딸을 살리셨고(막5:22~43),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눅7:13~14).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 늘도 올려보 지 못하고 가슴을 울

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 그러자 예수님이 세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모두 애통하는 자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겹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여러분,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유실수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은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점입확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을진대 분명히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

신다고 하셨으니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욥2:12~13).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34:18).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병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교회가 깨졌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모함을 받았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찢 달라고 우는 어린 아이처럼 영영 우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처럼 울어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나라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하 같이 울 때 사막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나라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욥5:9~11).

저는 목회 32년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도, 모함을 받았을 때도, 교단에서 제명당할 때도, 예배드릴 곳이 없을 때도, 능력이 없어서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주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 자입니다. 답을 옆에 두고도 답을 못 찾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면 문제가 풀리는 데 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바로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영화 ‘덩케르크’와 조국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최신작 ‘덩케르크(Dunkirk)’는 2차 대전 초기 독일군의 공세에 밀려 프랑스 덩케르크 항에 내몰린 영국군 30여만 명의 기적적인 철수작전을 그리고 있다. 도버해협 너머 조국의 땅을 지척에 두고 도 독일 공군의 폭격에 속절없이 파괴되는 군함들과 죽어가는 병사들. 패잔병인 그들은 오직 생존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뿐이다. 오직 살기 위해 전우의 시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전우를 속이기도 하며 같이 살고자 하는 프랑스 병사를 배타하여 죽음으로 내몬다. 살기 위한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하는 전쟁의 어두운 단면들이 이어진다. 영국군 사령관은 주변 일대의 어선들을 강제 징발하여 병사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철수작전에 돌입하고, 수많은 민간어선들이 도버해협을 건너 병사들을 실어 나른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착한 조국의 해안절벽을 바라보며 안도의 기쁨도 잠시, 병사들은 조국을 대할 면목이 없다. 살아남기 위해 온갖 부끄러운 짓도 마다않고 돌아온 조국, 병사들은 비난을 받을까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 그러나 조국의 품은 너무도 따뜻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며 담요도 나누어준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수고했다.”고 말해준다. 담요를 나누어주던 한 노인이 지친 병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축복한다. “수고했다.”

한은택 전도사

:: 신앙논객 ::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자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와 캠프 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대학부는 야외모임을 계획하였고, 서울 근교에 있는 워터파크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먹을 것도 풍성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흙바닥이어서 물과 흙이 범벅이 된 채로 차에 오른 아이들로 인해 차 내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주일이라 차에 또 애들을 태워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닦지?’ 원래 저는 차 바닥을 청소할 때 손걸레를 빨아서 바닥을 기면서(?) 닦는데, 이날은 진흙이 묻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침 예전 대방 교육관 건물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로 박박 문지르니까 눈에 보이는 진흙들은 다 닦이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일에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화요일까지 차를 타면 음식물 쓰레기 내지는 걸레 썩는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주일에는 비가 와서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냄새가 심하진 않았는데, 그대로는 수요일에 배 때 사람들을 태우

병사는 부끄러운 듯 말한다. “단지 살아왔을 뿐인데요.” 노인은 말한다. “그것으로 충분해.” 병사들이 전장(戰場)에서 살아온 것만으로 족하다는 조국(Mother Land)의 한없는 위로였다. 비록 패퇴하였으나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온 군대에게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요, 살아있는 것이 곧 승리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끝으로 병사는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의 의회연설이 실린 신문기사를 읽어 내려간다. “전쟁에서 철수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덩케르크에서의 철수는 승리입니다. 우리 끝까지 싸울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조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 들판, 거리, 그리고 언덕에서도 싸울 것이며,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음으로 다시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싸움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영화는 노인과 처칠의 대사를 빌려 뜨겁게 웅변한다. 최악에 빠져, 세상과 짝하다, 번번이 넘어지는 나약함으로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일어나 다시 시작해라!” 온유하신 주 음성,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자.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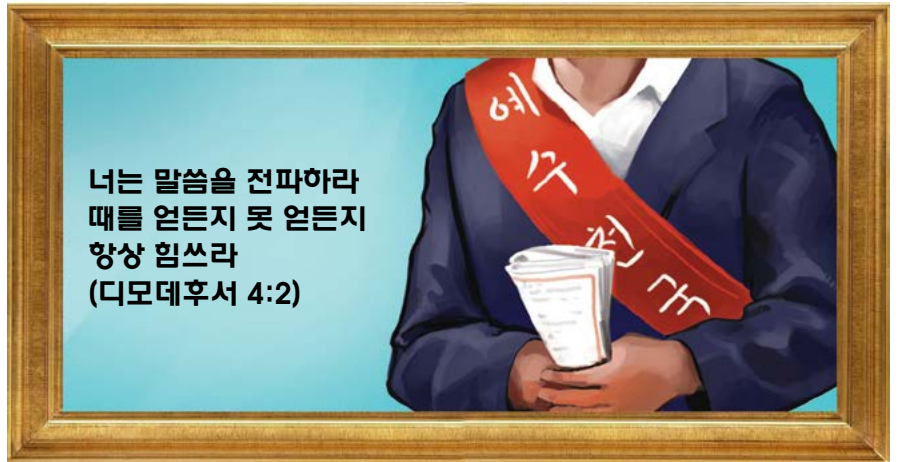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돌아온 탕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을 주제로 그린 것이다. 삭발한 한 남자는 한 쪽 신발이 벗겨진 채로 노인에게 무릎을 꿇은 채 안겨있고, 노인은 초라한 그 남자의 등과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좋은 옷과 모자를 쓴 맏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가락지까지 끼워주는 것이 못 마땅해서다. 자신은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건만 자신에게는 염소새끼 하나 주지 않은 아버지가 못마땅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죄의식을 감당키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

지 않았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아기처럼 평온한 표정이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쁘게 받아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말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아직 둘째 아들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 회개다. 물론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진정한 회개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다. 단호하게 거기서 180도 돌아서는 것,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빌미로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린 늘 회개한다. 그러나 회개란 말로 죄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임을 알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절실함이 낳은 저축

‘스튜핏(Stupid)’, ‘그레이트(Great)’이라는 표현 요즘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방송 데뷔 25년차이지만 이제야 주목을 받게 된 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는 개그맨 ‘김생민’으로 KBS ‘연예가중계’ 리포터,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의 ‘그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데, 생명력이 짧은 정글 같은 방송계에서 한 프로그램에 20년 넘게 출연하고 있는 착실한 방송인입니다. 그가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지상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그야말로 대세로 떠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유명 방송인들처럼 1회 출연료가 몇 백, 몇 천만 원을 호가하지 않는 조연 연예인입니다. 다른 연예인들보다 별이가 적었던 그는 리포터 첫 월급 28만원 중 20만원을 저금할 정도로 절약할 수밖에 없었고, 절약과 저축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미같이 일하여 저축한 그는 17년을 착실하게 모은 끝에 2013년 10억이 넘는 돈을 모았고, 비싸기로 소문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게 됩니다. 이런 그의 노력을 알았는지 사람들은 그에게 절약의 비법, 저축팁 등을 물어보고 한 팟캐스트(인터넷방송)

통한 오디오 파일)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영수증을 받아 착한 소비(그레이트)와 불필요한 소비(스튜핏)를 구분해 주고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쁘면 돈을 안 쓴다.”, “웃은 기본이 22년”, “안 사면 100% 할인”, 이런 명언들에 사람들은 그를 따라 통장을 늘리고 지출을 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비판하며 ‘YOLO(You only live once)’와 ‘탕진잼’의 가치관으로 ‘인생 그 까짓 거’의 삶 가운데 그의 절약과 저축의 습관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지출에 앞서 ‘절실함’이 선물해주는 ‘만기 통장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이시대 목사님을 통해 1년 월급을 한 순간의 즐거움이나 여행으로 탕진하는 젊은이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은 풍년에 20%를 저축하여 흉년 때에 대비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개그맨 김생민’을 본받아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소비와 함께 저축을 통해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해봅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축복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육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위에 드러나고, 그것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과 명예의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일정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가 사라진 공허함을 느끼거나 자칫 교만이 틈타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나태해지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과 이외에 모든 것을 누릴 축복을 주셨고, 만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의 축복을 주셨으며, 외로움이 없도록 배필의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것을 누리기는 했으나 지키지는 못했고 결국 영생을 잃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사로 부름 받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둬되는 계시에 힘을

얻고 몇몇 친구들과 바알 제단을 뒤엎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용맹한 자였습니다. 또한, 300명의 군사를 선별해 미디안 군대를 초토화시키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요단강까지 확장하는 큰 축복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축복을 잘 지켜낼 듯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도 겸손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말과는 다르게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의 아비멜렉이라 지으며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고, 전쟁에서 탈취한 금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며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실수를 합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요담을 제외한 70명의 형제를 모두 몰살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고, 그의 에봇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기드온의 가문에서 돌아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삿6~9장).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축복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축복을 다룰 수 있을 때 주시기를, 그리고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성장하길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신 축복'이 아닌 '축복을 주신 그 분',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노리는 것은 환란, 기근, 적신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분한 물질과 명예, 감당 못할 능력의 가면을 쓰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저울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과감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롯이 헌신할 때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드는 권능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 4:1~11).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해변 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실수로 다른 아이가 쌓아 놓은 모래성을 건드리는 바람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화가 나서 달려와 먹살을 잡고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성스럽게 모래로 성을 쌓아 올립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엄마가 와

서 집으로 가져와 줍니다. 아무도 그것을 집에 갖고 가지 못합니다. 밤에 밀물이 들어오면 그 모래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이루어 보겠다고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때가 되면 밀물에 쓸려 내려가는 모래성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종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 아닙니다. 영생을 준비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현명한 사냥꾼은 사냥개의 도움으로 사냥한다
인재를 활용하라

A wise hunter hunts by getting help from the hunting dog.
Take advantage of the talent.
明智的獵人靠獵狗的幫助打獵。要利用人才。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탈모를 위한 두 가지 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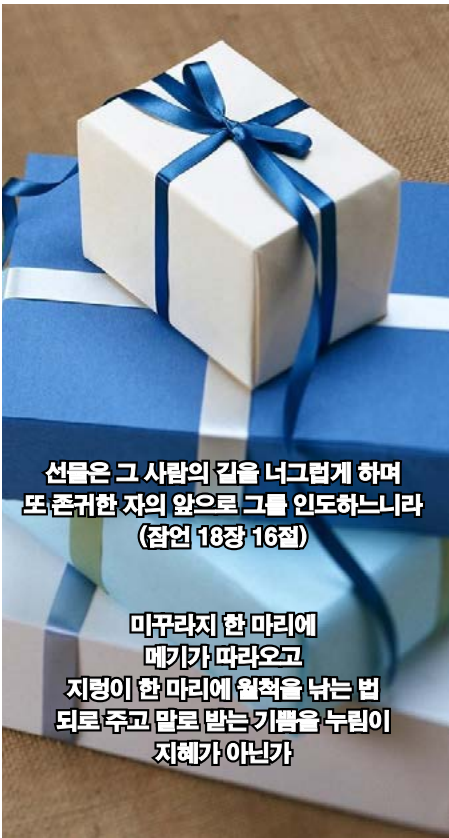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갖가지 상품과 처방이 난무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효과가 검증된 것은 미녹시딜(minoxidil) 제재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제재뿐이다. 무엇 무엇이 좋다는 속설들은 일부 근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대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며 탈모에 관한 이 두 가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녹시딜은 두피에 바르는 제재다. 혈관 확장을 통해 모발 성장을 유도한다. 일반 의약품이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남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원형탈모증에도 도움을 준다. 부작용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안전하다. 주로 밤에 잘 때 삼푸 후 머리를 말리고 두피에 고루 바른다. 적어도 4시간 이상 두피에 약물이 작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한다.

피나스테리드는 먹는 약이다.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는 원리로 탈모를 치료한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여성은 사용이 금지되어있으며 앞이마가 M자형으로, 혹은 정수리가 O자형으로 벗겨지는 남성형 탈모에만 사용한다. 미녹시딜보다 효과는 훨씬 강력하다.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다지만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정력 감퇴라는 부작용에 신경쓰는 남성이 많지만 대부분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개 1개월이면 미용사가 알아보고 3개월이면 자신이 알아보고 6개월이면 남도 알아볼 정도로 머리가 다시 자란다. 미녹시딜을 바르고 피나스테리드를 먹으면 효과가 배가된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두 가지 모두 투여하려면 매달 10만원 가까이 자

비 부담을 해야 한다. 또 바르거나 먹는 것을 중단하면 다시 머리카락이 빠진다. 그리고 이미 머리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매일 머리 감은 후 한 움큼씩 빠지며 겉으로 보아 듬성듬성해지는 탈모 초기라야 효과가 있다.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방법이 모발이식술이다. 가장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뒷머리 두피 일부를 잘라내야 하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심어야 하므로 생각보다 신체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술이다. 탈모에 관련한 비방 같은 효과가 없는 것에 헛돈과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겠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25센트의 6억 배

미국 네바다 주 사막 한 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펠빈 다마리는 한 젊은이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사막에는 차도 잘 안 다닙니다. 타시죠!"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이거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어느덧 라스베이거스에 다다르자 젊은이는 노인에게 25센트를 건네며 "영감님, 차비에 보태세요."라고 했습니다. 25센트를 받아든 노인은 한참이나 돈을 바라보더니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먼. 명함 한 장 주게나." 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펠빈 다마!" 노인은 혼잣말을 하고는 젊은이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월이 한참이나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펠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펠빈 다마가 누구일까 궁금해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펠빈 다마는 하워드 휴즈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 그것이 2,000억 원의 유산을 증여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꽃 피울 수 있음은 우리가 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친절은 사랑에서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8장 16절)

마귀라지 한 마리에
매기가 따라오고
지렁이 한 마리에 월척을 낚는 법
되록 주고 말로 밍는 기쁨을 누림이
지혜가 아닌가